

# 아동 포르노狂 ... 음란물 보며 키운 충동 현실서 실행

## 경찰 수사 결과

나주 초등학교 A양 성폭행범 고종석(23)은 평소 아동 음란물을 즐겨본 것으로 드러났다. 막노동을 하며 이곳저곳을 떠돌던 그는 모뎀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일본 아동 음란물을 보며 자신도 어린 여자와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결과다.

고종석 역시 최근까지 검거된 아동 성폭행 범인과 유사하게 아동 음란물을 보면서 로리타 콤플렉스(미성년자에게 성적인 관심을 갖는 행위)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아동 성폭행범들이 즐겨보며 범행의 '계기'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의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인터넷·스마트폰 유통에 속수무책

2일 경찰에 따르면 통영 초등학교 인 사건 이후 지난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아동 음란물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고씨 등 아동 성폭행범들이 즐겨본 아동 음란물은 단순 소지만 해도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파일공유 사이트, 스마트폰 등을 통해 게릴라식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포르노 사이트를 통해서도 10대 음란물은 쉽게 구해볼 수 있는 실정이다. 거의 대부분의 아동 음란물이 해외에서 서버를 둔 사이트를 통해 제작·유통되고 있어 경찰의 단속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아동 음란물의 경우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점점 단속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동 인권 침해, 성범죄 유발 등 심각성을 고려해 아동 음란물 제작·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종석은 물론 통영 초등학교 납치 살해사건 범인 김점덕(45),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사건 범인 오원춘(42), 지난 2010년 서울 초등학교 납치 성폭행 사건 범인 김수철(47) 등 최근 아동 등의 성폭행 사건 범인은 모두 아동 음란물을 즐겨봤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3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청소년층도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쉽게 접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규모·속도·범위를 경찰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성폭행범에 카메라 세례 '나주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종석이 지난 31일 나주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동안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피해 머리를 숙이고 있다. /나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완도서 중학 중퇴 ... 마을금고 훔쳐 쫓겨나 막노동 전전

### 고종석은 누구?

완도가 고향인 고종석(23)은 중학교를 중퇴한 이후 지난 봄부터 뚜렷한 주거지가 없이 나주와 순천을 오가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고종석은 중학교 2학년 무렵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중퇴한 이후 완도의 작은 섬마을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도우며 생활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마을 금고에서 주민들이 행사를 치르면서 모아 놓은 돈을 훔치기도 했다. 평소 말수가 적었던 고종석은 주민들과 아무 말없이 지내다가 이 사건 이후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섬을 떠났다.

이후 순천의 모뎀을 전전하며 직업

소개소를 통해 막노동관에서 일했다. 번 돈의 대부분은 남는 시간에 술집과 PC방에서 사용했다. 최근에는 태풍으로 인해 일감을 찾지 못해 사건 발생 5일 전인 지난 25일 작은아버지가 사는 나주로 왔다. 고종석은 평소 모뎀에서 포르노를 즐겨봤으며, PC방에서는 각종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게임 마니아'로 밝혀졌다.

고종석은 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가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지만 고종석과 인터뷰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권일웅 경감은 "고종석은 타인에 대한 배려나 자신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유형"

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일 오후 6시30분부터 밤 9시까지 2시간30분 동안 광주 서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그를 면담한 권경감은 "고종석은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날따라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것만 같았다"고 말했다. 앞서 고종석은 전날 오후 10시쯤 잠들어 이날 오전 7시쯤 잠을 깬다. 오전 8시쯤엔 두부국, 숙주나물, 김치, 콩을 반찬으로 아침식사를 했다. 잠에서 깬 고종석은 경찰관에게 "오늘 일정은 어떻게 돼요?"라고 물어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A양 이불째 납치→영산대교 밑 성폭행→태풍 속 버리고 도주

### 성폭행 사건 재구성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고종석(23)의 범행은 대담하고 계획적이었다. 경찰 수사관들도 "대범했고, 보통놈이 아니다"고 혀를 내둘렀다.

지난 1일 경찰의 현장검증을 토대로 고종석이 A(7)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주하기까지의 과정을 재구성했다.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던 고씨가 A양 집에서 200여m 떨어진 작은 아버지 집을 찾은 것은 지난 25일. 태풍도 불고 순천에서 일거리가 없던 차였다.

29일 밤 사촌동생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30일 새벽 1시에 평소처럼 작은 아버지 집에서 150m 가량 떨어진 PC방에 들렀다. 이곳에서 그는 알고 지내던 A양의 어머니 B(37)씨와 마주쳤다. 5년 전 잠시 이곳에 살았던 고종석은 B씨의 큰 딸(12)이 떠올랐다. 순간 욕정이 솟구친 그는 B씨에게 "애들은 잘 있느냐"고 안부를 물

"살려달라" 하자 "삼촌이다" 슈퍼에서 20만원 훔쳐 도피 성폭행 기사 검색하다 덜미

었다.

B씨가 게임에 빠져있는 사이 PC방을 나온 그가 80m 가량 떨어진 A양의 집에 들른 것은 새벽 1시45분께.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인적이 없었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4남매가 누워 있는 거실이 눈에 들어왔다. 고종석은 문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누워있는 A양을 이불째 들고 납치했다.

건강한 체격의 고씨가 겨우 20kg 남짓한 아이를 들고 나가자마자 가족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놀라 잠에서 깬 A양을 "삼촌이다"며 안심시킨 그는 곧바로 300m 가량 떨어진

영산대교 밑으로 향했다. 아이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고종석은 새벽 2시20분께 직장이 파열되는 등 큰 상처를 입은 A양을 차가운 땅바닥에 내버려둔 채 태연히 자리를 떴다.

이러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 2시30분께 A양의 집에서 50여m 떨어진 한 슈퍼마켓에서 현금 20만원과 담배 3보통을 훔쳤다. 그 후 나주 일대를 배회하던 고종석은 태연히 시내 한 찜질방에서 하루를 묵은 뒤 광주를 거쳐 시외버스를 이용, 순천으로 향했다.

고종석은 같은 날 오후 1시25분께 자신의 단골 PC방에 들러 '나주 성폭행'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 제보를 받고 잠복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A양, 경찰에 발견 뒤에도 5시간 동안 치료 못 받았다

### 응급대응체계 문제

'나주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A(7)양이 사건 발생 후 10시간 넘게 사건 현장 및 도로변에 방치되고, 경찰에 발견된 뒤 5시간 동안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

2일 나주경찰 등에 따르면 A양은 나주의 집에서 자던 중 지난 30일 새벽 1시45분께 납치됐고, 같은 날 새벽 2시30분 이전에 유기됐다. A양이 같

은 날 오후 12시55분께 수색중이던 한 시민은 "집과 불과 3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경찰이 5시간 동안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A양은 지난 31일 오후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3일 오후 2시30분 병원에서 A양의 현재 상태와 그동안의 진료 상황, 앞으로 수술 여부 등의 치료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 시민은 "집과 불과 3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경찰이 5시간 동안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A양은 지난 31일 오후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3일 오후 2시30분 병원에서 A양의 현재 상태와 그동안의 진료 상황, 앞으로 수술 여부 등의 치료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알림 작가 휴가로 당분간 만평·만화 쉽니다.

호남을대표하는 여행브랜드

## 조이 투어

JOY TOUR CO.,LTD

대표전화: (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2000.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 추석연휴기간 무안전세기 단1회

## 무안↔정주 직항

### 9월29일(토) 출발

정주/낙양/서안/태왕산/소림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선종의 발상지

품격	정주,낙양,운대산 5일	₩1,250,000
고품격	정주,운대산 낙양 개봉 5일	₩1,350,000
품격	정주,낙양,서안 5일	₩1,350,000
품격	정주,태왕산 낙양 5일	₩1,300,000
품격	정주관광+골프 36H 5일	₩1,570,000

※전일정 포함사항 : 국제선 왕복항공료, 유류할증료, 호텔(2인1실), 차량, 전일정사자, 관광지입장료, 2억원 여행자보험, 중국단체비자, 가이드/기사님

※불포함: 여권및 개인지출비용, 에티켓팁(벨보이,룸메이드)

※사전결제: 중국국가관광국 서울지국

예약문의 **조이투어 062)234-3222** / 자유투어 광주시점 062)382-3300 / 자유투어 목포점 061)284-1000 / 자유투어 전주점 063)284-6868 / 자유투어 광양점 061)792-7222 / 장흥 경남전투어 061)864-7883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2억원 여행보험보통 가입 / 여행권리 가입업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법기금, 공항 및 무료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없음(단, 기사기여도 봉사료, 선착관광 작곡 비저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회사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